



검사소에 얽힌 뒷이야기

“아가씨가 어디 할 일 없어 변검사 다녀?”

김 이 순

하늘은 개어 맑은데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기형검사실 오후 한때 잠시나마 검사실 업무를 잊어버리고 지난날 회상에 잠기어 본다.

맨처음 기협에 들어와 검사실 업무를 담당할 때 하루 종일 눈이 빠지도

록 검사 해도 겨우 슬라이드 20장을 보고 퇴근할 때 왜 그렇게도 현미경 보는게 힘이 들든지.

요충검사를 나갔을 때 유치원 원장 선생님 말씀, 아가씨가 예비 총각 처녀 궁둥이를 선포해서 되겠냐는 말씀에 한바탕 웃었던 일, 가두 검변 나갔을 때 검사하러온 시민들이 아가씨가 어디 할 일 없이 똥검사를 하러 다니느냐는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던 일.



다 지나고 보니 나의 입가에는 웃음이 남는다.

얼마 전 조사연구사업 자료 변수집 출장을 갔었다.

해마다 국민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 도시와 농촌의 기생충 감염율과 낙동강 주변의 주민들 간디스토마 감염율을 기협에서는 조사 연구하고 있다.

난생 처음 출장 명령을 받고 조금은 걱정이 되는 마음에 밤새 잠을 잔 등만둥 하여 밝히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울까, 시골행 버스에서 내린 나의 모습은 집 앞은 미아 같았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마을 주민들에게 이 지역은 간디스토마 증감염 지역이므로 변검사를 해야 한다고 계몽을 시키고 집집마다 봉투를 나누어 주면서 필요량만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어떤 집에는 가니까 우리 식구들은 몸이 다 건강하다면서 봉투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집에서는 원 별 사람도 다 보았네. 똥은 무엇하러 받아 달라는게야, 또 어떤 집에는 청춘이 만리같은 아가씨가 왜 똥장사는 하려 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시골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일일이 우리가 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소상히 설명드리고 꼭 변을 받아올것을 거듭 부탁하였다.

이튿날 어제의 피로가 아직 가지지 않은 몸으로 변을 거두러 가니 몇몇 집은 더운데 수고한다면서 변을 깨끗이 받아두었다가 주는데, 어떤 집은 요사히 쓰레기 처치 곤란한 그런 똥을 받아주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4~5일만에 한 번씩 변을 본다면서 받아놓지 않았다.

당신들의 건강을 위해 이렇게 더운 날씨에 며칠을 다니는데 따뜻한 숯불은 한그릇 못출망정 이렇게 애를 먹어서야 되겠느냐면서 본의 아니게 화도 내고 또 놀러간 어린이를 불러서 마당에 변을 보게 해서 직접 봉투에 넣어 오기도 하면서 며칠 출장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버스에 오르니 시골 장날인지 차가 복잡하여 보따리놓을 틈은 커녕 사람들도 짐짝처럼 취급받는 처지고 보니 염채 불구하고 앉은 사람에게 짐을 좀 받아줄 것을 부탁하니 그사람 친절하게도 “예” 하며 짐을 받아 앞가슴에 꼭 안는다.

가만히 생각하니 우습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복잡한 버스 안을 타하며 질주하는 버스의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사이 버스가 대구에 도착하였다.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범위를 차지해서 기생충 없는 건강한 내일의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염원 아래 씩씩한 시계의 초침소리를 들으며 최선을 다해 될 것을 기약해본다.

(필자=기협 경북지부 검사기사)